[UCI]I804:24011-200000233099

2006年 2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日本語動詞의 アスペクトに 대한 考察

-「補助動詞」을 中心으로-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尹 熙 月

2006年2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日本語動詞의 アスペクトに 대한 考察

尹 熙 月

日本語動詞의 アスペクトに 대한 考察

-「補助動詞」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meaning of aspect in Japanese Verbs

-on the 「Auxiliary Verbs」-

*2006*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專攻

尹 熙 月

日本語動詞의 アスペクトに 대한 考察

-「補助動詞」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丁　意　祥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5*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尹　熙　月

尹熙月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朴　靑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丁　意　祥　　印

*2005*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Ⅰ. 序　論 …… 1

Ⅱ. 本　論

1.アスペクト의 概念과 先行研究 …… 4

1.1. アスペクト와テンス의 概念 …… 4

1.2. 先行研究 …… 5

2. アスペクト에 의한 動詞分類 …… 11

2.1 외적운동 동사 …… 12

2.2 내적 정태(静態)동사 …… 14

2.3 정태(静態)동사 …… 15

3.「補助動詞」アスペクト形式의意味構造 …… 17

3.1. 「ている」와「てある」 …… 17

3.1.1. 「ている」의 意味構造 …… 17

3.1.2. 「てある」의 意味構造 …… 26

3.2. 「てくる」와「ていく」 …… 31

3.2.1. 「てくる」의 意味構造 …… 31

3.2.2. 「ていく」의 意味構造 …… 33

3.2.3. 「てくる」와「ていく」의 意味比較 …… 34

3.3.「ておく」 …… 39

3.3.1. 「ておく」의 意味構造 …… 39

3.3.2. 「ておく」와「てある」의 関聯性 …… 43

3.4. 「てしまう」의 意味構造 …… 44

Ⅲ. 結　論 …… 48

参考文献 …… 50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aspect in japaness Verbs

-on the 「Auxiliary Verbs」-

Yoon, Hee Wol

Advisor: Jung Eui-Sang

Majoring in Japanese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When it comes to the aspect we say that it is a morphologic category of the verb and It can express where it is on the process. While we use it as a expression of the time, aspect is recognized as a important of grammatical category. A system of aspect has a relation with the meaning of the vocabulary and it is not suitable for all verbs.

So investigate the category of the meaning of aspect on a form of 「Auxiliary Verbs」which is one of the many kinds of the form of aspect.

First, for your comprehension, we considered a concept, preceding investigation and form of aspect, category of the verb as a characteristic of aspect. Moreover we investigated the meaning of aspect on the form of 「Auxiliary Verbs」.

We come to the conclusion like the below,

"シテイル"(siteiru) represents the continuance of the motion and 2 basic meanings of the continuance. 2 basic meanings are 1 as the meaning of the continuance but it is a kind of confrontation.Deference between 2 facts is that verb is based on the meaning of vocabulary, "スル"(suru) and "シテイル"(siteiru) which are the coordinate concept are

divided into 2 facts.

But it doesn't depend on the continuation and stillness, it depends on the subject of a movement and the subject of a change. And these are confronted as the movement, the change and unified.

And"シテイル"(siteiru)means「repetition」,「effectively previous movemen t」, 「simple condition」as a 3 meanings of the aspect. 「repetition」, 「effectively previous movement」are not suitable for the confrontation of"スル"(suru), 「simple condition」is not confronted with "スル"(suru).

When it comes to the meaning of a derived form, confrontation with "スル"(suru)will be not effective or becoming extinct and verb for the movement will not be the problem with the verb for the change.

"シテアル"(sitearu) is changed by a transitive verb which express the movement for the intention. And the transitive verb which can't express the condition of the present time is not suitable for the form of "シテアル"(sitearu).

"シテクル"(sitekuru) "シテイク" (siteiku) is on the time of progress of the movement and these express. "シテクル"(sitekuru) is used, when there is the access to the speaker or the process of the appearance. But "シテイク" (siteiku) is started from the speaker and it's meaning of the disappearance.

"シテクル"(sitekuru) "シテイク" (siteiku) do not depend on the present place. Once the subject of movement is in accord with a protagonist, these can be altered.

"シテオク" (siteoku) is used for the voluntary movement. Because it is considered as a previous movement.

"シテアル" (sitearu) is used for the results of the movement of the subject. But "シテオク" (siteoku) is the preparation of the movement for

"シテアル" (sitearu).

"シテシマウ" (sitesimau) expresses the movement finished. it is used, when there is a continuous use of verb.

When it expresses the passive movement, it disobeys the subject's will. Because it needs the meaning of the completion.

It needs the adverb for the degree to use the form of "シテシマウ" (sitesimau).

This paper investigates "シテイル" "シテアル" "シテクル" "シテイク" "シテオク" "シテシマウ" on the category of the meaning of aspect.

At last, we come to conclusion that aspect has a relevance with tense which is the expression for the time. We will take into investigation that the one can become independent from another among aspect, tense and which category will be related to their category to concentrate on the correlation between aspect and tense.

Ⅰ. 序　論

시간표현의 한 유형인 아스펙트(相)란 일반적으로 '動詞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作用이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 시작, 전개, 종료의 어느 과정 또는 단계, 즉 어느 局面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動詞의 文法的인 카테고리'라고 정의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動詞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作用은 어떠한 형태로든 일정 시간 속에서 몇 개의 과정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표현된다. 해당 동작이나 작용을 진행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인식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과정을 捨象해 버리고 해당 동작이나 작용의 어느 한 시점에서의 완료에 중점을 두어 인식하는가, 또는 그 동작이나 작용의 결과적 측면에서 인식하는가 라고 하는 인식론적인 차이에 의해 여러 가지 相的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아스펙트(相)는 現代 日本語의 時間表現 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법 範疇라 할 수 있다.

日本語의 경우, 動詞는 단독으로 사용하면 그 意味가 概念的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動詞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단계 내지는 상태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사의 相的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형식을 접속시킴으로 인해, 해당 동작이나 작용이 어느 局面에 있는가하는 相的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飲む」라고 하는 동사의 시간적 표현을 살펴보면 「ぼくは飲む」는 현재 마시고 있는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상적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飲む(마시다)」라는 동작의 유무와 관련하여 「마시다」라는 概念的인 意味를 갖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補助動詞 형식을 접속시켜 「飲んでいる」「飲んである」「飲んでくる」「飲んでいく」「飲んでしまう」「飲んでおく」와 같이 표현하면 「飲む」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시간적으로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이처럼 동사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스펙트의 문제로서 「補助動詞」는 아스펙트를 나타내는 하나의 형식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日本語는 文構成上에 있어서 語順이 主語, 目的語 그리고 述語의 順으로 韓国語와 語順이 같고 文法이 類似하기 때문에 쉽게 習得 하고, 飜訳한다.
그러나 日本語의 動詞는 動詞가 몇 가지의 下位分類로 갈라지고, 또한 한가지의 下位範疇에 속하는 어느 動詞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下位範疇에 속하는 의미적으로 対応하는 여러 接辞 付着등에 따른 多用化의 文法的 事実을 概念的으로 호칭하고 있어 아스펙트의 意味를 이해하기에는 많은 혼동이 있다.

이에, 본 論文에서는 아스펙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스펙트에 대한 개념과 형태, 그리고 아스펙트적 측면에서의 동사분류 등 아스펙트 전반에 걸쳐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補助動詞」에 의한 아스펙트 形式에 중점을 두어 「ている」「てある」「てくる」「ていく」「ておく」「てしまう」를 대상으로 이러한 補助動詞들이 어떤 아스펙트적 意味를 나타내고, 그 意味를 実現하기 위하여 어떤 条件들이 必要한가를 考察하여, 이들 補助動詞들의 아스펙트적 意味를 분명히 하고자한다.
그리고, 아스펙트로 表現된 文의 意味가 進行 또는 状態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텐스와는 다른 文法形式이 되지만, 두 形式이 時間을 前提로 한다는 점에서 相互関係를 간과 할 수 없으므로 본 論文에서는 다음과 같은 事項에 注目하여 考察해 나가고자 한다.

① 아스펙트와 텐스의 概念에 관하여 考察하며, 아스펙트의 概念에따라 動詞를 分類한다.

② 아스펙트 形式을 類型에 따라 分類하여 考察한다.

③ 아스펙트적 의미 실현을 위한 조건

④ 비슷한 의미표현의 비교

以上의 考察結果를 바탕으로, 아스펙트적 実現에 있어서 「補助動詞」아스펙트 形式 表現의 実際적인 쓰임에 있어서 그 아스펙트적 意味와 그에 関係하는 事項들을 이해함으로서 日本語 動詞의아스펙트적 性格을 考察해 보고자 함이 本稿의 研究目的이다.

Ⅱ.本　　論

1. 아스펙트의 概念과 先行研究

1.1. 아스펙트 와 텐스의 概念

韓国語 또는 日本語 母語話者에게 있어서 텐스(時制)用語에 비해, 아스펙트라는 用語는 スラブ語 母語話者와 비교해 보면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둘 概念의 語源을 調査해보면, 텐스(tense)라는 用語는 ラテン語의 tempus(時)에 아스펙트(aspect)라는 用語는 ラテン語의 aspectus(視点)에 由来한다.

言語学史에 있어서 (혹은 現在도) 이 양자가 時間関係의 表現으로서 혼동되고 있는 例는 자주 보이고 있으나, 現在 管見에서 Comrie(1976)의 규정이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지지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Comrie(1976)는 텐스를 「出来事の外的時間」(situation-externaltime)에 있고, 아스펙트를 「出来事の内的時間」(situation-internal time)으로 상대적 概念으로서 다룬 것 위에

「aspects are different waus of viewing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u of a situatino」(comrie(1976:3-5))

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것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工藤(1995)는 다음과 같이 説明하고 있다.

「テンス(tense)とは基本的に過去、現在、未来のような＜発話時を基準軸とする、出来事の外的な時間的位置の相違＞を表し分ける文法範疇である。アスペクト(aspect)は時間の中で展開する出来事を、ひとまとまりとして一括化して完成的に捉えるか、継続の中にある不完成的に捉えるかの、＜出来事の内的時間（時間的展開性）に対する視

点の相違＞を表し分ける文法範疇である。」(工藤(1995)

이처럼 아스펙트는 유럽의 文法論에서 말하는 aspect를 지칭한다. 動詞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変化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時間을 필요로 하며 一般的으로 몇 개의 과정적인 部分으로 이루어져 있다. 動詞의 아스펙트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動詞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変化의 어느 段階에 위치하는 가를 意味的으로 강조하는 形態論(文法論)적인 카테고리이며 (situation-internal time 事態의 内的時間), 같은 시간적 概念으로서 発話時와의 関係를 중시하는 텐스와는 内的時間인가 外的時間인가라는 점에서 서로 区別된다.

그에 반해, 텐스는 用語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変化, 存在, 状態 등의 時間関係를 나타내는 文法的(形態論的)인 카테고리이다. 즉,発話時를 基準으로 하여動詞가나타내는運動이나 状態의 성립시간을 나타낸다.(situatio-externaltime 事態의 外的時間).

文法上의 시간적인 対立関係는 伝統文法이 過去, 現在, 未来의 3分的대립이 있다고 인식한 점에서 文法範疇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時制는 用言의 語形変化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동사의 屈折, 分詞의 사용 등 文法的인 標識에 의해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時間에는 물리적인 時間과 심리적인 時間이 있으며, 언어표현에 있어서 時間의 문제도 인간의 인식작용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一元的으로 自然時間의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인간의 時間概念에 있어서 発話時는 언제나 現在이며, 이것을 基準으로 하여 過去, 未来가 存在하게 된다. 또한 現在라고 하는 것은 時間의 幅이 없는 점이 아닌, 어느 정도의 時間의 幅을 갖는 開区間(open interval)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2. 先行研究

現代 日本語의 아스펙트의 研究史는 2차대전 以前부터 오랜 歴史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戦後의 金田一春彦(1950)「国語動詞の一分類」[1)]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金田一의 「国語動詞の一分類」에서는 形式主義的 接近을 배제하고, ている를 아스펙트 의 表現의 有意味的 単位(分析的形式)로 다룸으로서 文法的意味와 語彙的意味(다시 말해 動詞分類) 와의 상관성을 밝힌 것이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テイル」의 形式과 意味와 相関해 日本語의 動詞가 「状態動詞」「継続動詞」「瞬間動詞」「第」4種動詞」의 4개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 중에서 「状態動詞」「継続動詞」는 당시의 主旨와는 약간 변형된 形(<動作の長さ>だけの意味)으로 日本語 教育現場에서 뿐만 아니라 日本語学界에서도 現在까지 勢力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金田一의 「継続動詞」는 「読む、見る、走る」등과 같이 動作 · 作用이 일정의 폭을 가지는 것과 「ている」가 <動作의 最中>에 있는 意味를 実現하는 条件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 金田一의 지적에 자극받고 日本語의 아스펙트 研究는 鈴木重幸(1958), 高橋太郎(1969)등의 議論을 거쳐 藤井正(1966)과 吉川武時(1973)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鈴木重幸(1958)[2)]는 金田一의 論을 形態論的인 研究法에 의해 파악해 수정했다. 鈴木에 의하면, 動詞는 모두 「語彙=文法的인 카테고리」로서 「すがた的な性格(aspectual character)」[3)]를 갖고 「動作性動詞」와「状態性動詞」로

---

1) 「國語動詞一分類」,『言語研究』15. p48-63 1950
2)「日本語の動詞のとき(テンス)とすがた(アスペクト)」(金田一編(1976)『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に所收), 1958
3) すがた的な性格は、動詞の語彙的な特徴(その表わすプロセスがどういうものであるか)と文法的な(形態論的な)特徴(とき、すがた)の両方にかかわることであって、語彙＝文法的な(語彙＝形態論的な)カテゴリーである。(鈴木1957、p67)

나뉜다.

鈴木는 아스펙트 形式으로서 「ている、てある、てくる、ていく、ておく、てしまう」등의 テ形을 인정하고, 「しはじめる、しつづある、しおわる」는 「一定のすがた的な性格を表すための複合動詞」라 했다. 그리고 특히, 「する」와「している」의 대립을 문제 삼고, 前者를 「基本態」後者를「持続態」라고 칭하였다.

이 같은 관점으로 鈴木가 「動作性動詞」를 「持続態」의 意味에 따라 「持続動作性動詞」와「瞬間動作性動詞」로 나눠 語彙的意味를 취한 것과 「持続態」를 갖지 않는「状態性動詞」를 아스펙트 論의 대상으로 한 것이 나중에 奥田에 의해 비판받는다.

鈴木는「現在未来形」(する形)과 「過去形」(した形) 을 形態論的으로 대립하는 카테고리로서 텐스를 인정한다. 그리고 텐스의 意味를 「現在の時間を反映したもの」로서「話(発言)の瞬間」을 기준으로 「現在(話の瞬間)」「過去(話の瞬間より前の時間)」「未来(話の瞬間より後の時間)」으로 나뉜다. 「現在未来形」은 더구나 두 개의 카테고리의 조합에 의해 「現在」와「現在未来」로 나눠진다. 하나는 動詞의「語彙=文法的카테고리」(動作動詞인가 状態動詞인가)로, 다른 하나는「文法的使用의 카테고리」(基本的인 用法인가 潜在的인 用法인가)이다.

高橋는 動詞連体形 する ・ した가, 時間의 型式名詞에 따라오고, 規定語로 되고, 関係的인 결합을 만드는 등, 鈴木가 다루지 않았던 現象에 대해 텐스・아스펙트적 性格을 記述하고, 다음과 같이 形態論的・通語論的으로 구별했다.

「のち、あと、まえ、以前」에 따르는 경우는「相対的인 텐스(述語가 가리키는 動作이나 状態가 성립될 때를 基準으로 하고, 그것보다 以前일까 以後일까 또는 그것과 同時인지를 나타내는 것)」를 나타낸다. 「瞬間、せつな」에 따르는 경우는「過去」또는「成立」이라는 아스펙트적으로 대립한다.「とき」에 따르는 경우는 相対的인 텐스의 대립, 아스펙트적인 대립, 絶対的인 텐스의 대립 등을 나타낸다. 「名詞のしめすものごとの質を規定する」경우는 텐스・아스펙트로부터 해방된다.

이처럼 一連의 研究는「要素主義」라 부르는 것은 「している」形을「する」와의 対立関係 속에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している」의 文法的 意味의 究明만에 焦点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奥田靖雄는 金田一(1955) 「日本語動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에 대하여 要素(している)는 그 자체에서가 아닌 包括的 체계의 部分으로서만 그 가치를 해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奥田(1977)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一 金田一的段階一」[4]이다.

奥田는 現代日本語의 아스펙트 체계를 する(完成相)와 している(継続相)가 서로 대립할 때 비로써 가치를 갖는 상보적 대립관계 속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 鈴木(1965) 「現代日本語の動詞のテンス一言い切りの述語につかわれた場合一」[5]鈴木(1979)「現代日本語の動詞のテンス一終止的な述語につかわれた完成相の叙述法判断の場合一」[6] 를 이론적으로 정밀한 형태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奥田의 논문에 의해 제시된 체계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처음으로 일반언어학에 기초해 日本語로 형태론적 문법 카테고리로서 아스펙트가 정립되고, 상대적인 대립관계 속에서 「する」를 <ひとまとまりの動作>로, 「している」를 <継続のなかの動作>로, 「完成相」과「継続相」을 확인

② 「する」「した」「している」「していた」라는 4개의 문법적 형식에 의해 조직적인 Paradigmatic(계열적) relation을 이루는 텐스・아스펙트 체계와 상관성을 확인. (물론, 이 テンス ・ アスペクト가 ボイス、モダリティ라는 다른 문법적 카테고리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

---

4)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教育國語』p53-54, 1977.
5) 「現代日本語の動詞のテンス」(『ことばの研究2』秀英出版) 1965.
6) 「現代日本語の動詞のテンス」(『言語の研究』むぎ書房) 1979.

③ 문법적 의미와 어휘적 의미와의 상관성을 확인.

奥田는 먼저, 金田一(1950)의 일반화의 불충분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しかし、このような一般化が妥当でないことは、二、三の動詞をひきあいにだすだけでふじゅうぶんである。たとえは、瞬間動詞は、瞬間的におわる動作をしめすものであるはずだが、hutoru, yaseru, hageru, iku, kaeru のような動作がししめす動作（あるいはうごき）は、けっして瞬間的ではない。しかし、これらの動詞は、（二）の意味を実現するがゆえに、瞬間動詞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tataku, butu, ataru, suretigau, kiru のような動作がさししめす動作は瞬間的、あるいは瞬間的にちかいものだが、これらの動詞は、（一）の意味を実現するがゆえに、継続動詞である。kekkonsuruが瞬間動詞か、継続動詞かなどという愚劣な質問がでてきて、まじめな議論がなりたたなくなる。そんなことで、この《動作のながさ》による一般化が、アスペクトとかかわっておこなう動詞グループの語彙的な意味の一般化としては失敗であることは、だれの目にもはっきりしてくる。」

（奥田（1977/8:113-114））

따라서 〈動作のながさ〉에 의한 「継続動詞」와「瞬間動詞」에는 원리적인 모순이 있고, 그 대신으로서, 「主体動作動詞」와「主体変化動詞」를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金田一(1950)의 「状態動詞」와「第4種動詞」는 아스펙트 체계가 없는 동사로 오늘날 <状態動詞>에 포함되어지고, 여기에는 「存在する一存在している」라는 외견상의 대립에 지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工藤真由美(1989・1995)[7]는 奥田(1977/8)의 뒤를 이어, 日本語의 아스펙트를 이론적으로 전개해 기능적인 면도 정비한, 체계・

기능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의 공헌 점은 パーフェクト(perfect)와 タクシス(taxis)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것으로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パーフェクト(perfect)는, 다음과 같이 종래의 연구에서 「ている」형의 의미의 하나로서 이른바<경험 · 기록>로서 다루어져 온 것과 鈴木(1979)나 寺村(1983)등 「タ(完了)」로서 다루어져 온 것을, 비본질적이고 비포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パーフェクト(perfect)」로서 통합해 아스펙트체계 속에서 파생적인 의미로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성공하면서 일반언어학과의 연결도 가능하게 되었다.

⑴ 彼は風邪の新薬を発見している。 (経験 · 記録)

⑵「晩御飯はすませましたか」 (完了)

「いや、まだ食べていません」

여기서 パーフェクト(perfect)는, 「설정 시점에 있어서, 그 이전에 성립한 운동의 효력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에, タクシス(taxis)는 시간적으로도 인과 관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복수의 문이 유기적인 결속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テキスト로 사건간의 시간적인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タクシス의 기능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来た、見た、勝った」라는 유명한 예문이다. 여기에 복합 화되어 있는 시간적인 측면을 들어서보면 텐스적 측면에서는, 발화시와 외적시간관계(shirter[8], 変換子)이기 때문에, 과거의 표현이 되고, 아스펙트적 측면에서는 사건내부의 시간적인 모습

---

7) 「現代日本語のパーフェクトをめぐって」(『ことばの科・3學』むぎ書房) 1989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クスト』ひつじ書房, 1995

8) この概念を理解するためには「對象世界の時間」と「年代的時間」、「言語世界の時間」を區別しなけらばならない。

(designater, 指定子)이기 때문에, 완성상의 표현이고, タクシス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사건과 다른 사건과의 외적시간관계(connecter, 連結子)이기 때문에, 계기성의 표현으로 되는 것이다.

2. 아스펙트에 의한 動詞分類

現代日本語의 動詞는 아스펙트 대립의 有無의 관점에서 우선 크게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9)]

(A)외적운동동사—開ける(열다)、切る(자르다)、殺す(죽이다)、食べる(먹다)、見る(보다)、読む(읽다)、たたく(두드리다)、歩く(걷다)、遊ぶ(놀다)、動く(움직이다)、座る(앉다)、行く(가다)、死ぬ(죽다)、枯れる(마르다)、曇る(흐리다)、結婚する(결혼하다)

(B)내적정태(静態)동사—思う(생각하다)、考える(생각하다)、信じる(믿다)望む(바라다)、心配する(걱정하다)、感動する(감동하다)、苦しむ(괴로워하다)、驚く(놀라다)、あきれる(질리다)、感じる(느끼다)、見える(보이다)、痛む(아프다)、疲れる(피곤하다)

(C)정태(静態)동사— ある(있다)、いる(있다)、値する(상당하다)、甘すぎる(너무 달다)、存在する(존재하다)、異なる(다르다)、意味する(의미하다)、優れている(뛰어나다)、精通している(정통하다)、そびえている(솟아있다)、面している(접해있다)

외적운동동사(dynamic verb)는, 시간 속에서 성립(개시)・전개・소멸(종

9) 工藤眞由美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クスト』,ひつじ書房, 1995.p.83-94

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를 남기는 사물의 동태적(動態的)인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다운 동사이다. 현대일본어 동사의 가장 압도적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이 동사그룹에 있어서야 말고, 「する―している」의 아스펙트적 대립이 전형적인 형태로 성립된다.

이에 반해, 정태(静態)동사(static verb)는, 시간 속으로의 現象을 문제로 삼을 수 없는 「異なる(다르다)、意味する(의미하다)」나「甘すぎる(너무 달다)、優れている(뛰어나다)」처럼 <관계 · 특성>을 포착하고 있거나, 시간 속에서의 現象이 일어났다 해도 시간적 전개성이 없는 「いる(있다)、存在する(존재하다)」「そびえている(솟아있다)、面している(접해있다)」처럼 <존재 · 공간적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 정적인 동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답지 않은 동사에 있어서는 「する―している」의 아스펙트적 대립이 성립할 수 없다.「ある、甘すぎる」에는 している가 없고 「優れている、そびえている」에는 している밖에 없다. 「存在する/存在している、異なる/異なっている」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する、している가 있지만, 아스펙트적 의미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

내적정태(静態)동사는 (A)운동동사와 같이 시간적 전개성이 있지만, 운동동사=외적사상(事象)동사와 달리, <사고 감정, 지각, 감각>이라는 인간의 내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적 전개성이 있기 때문에 「する―している」의 아스펙트적 대립이 성립하지만, 내적인 사고나 감정, 감각은 화자만이 직접 감지(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2.1. 외적운동 동사

대부분의 동사가 속하는 외적운동동사에 있어서 「する―している」가 <완성성=한계적 파악>인가 <계속성=비한계적 파악>인가에 따라 대립을 보이지만, 동사의 어휘적 의미의 규정을 받아, 복수의 변종이 생기기도 한다. <동작>인가 <변화> 인가하는 관점과, <주체> 인가 <객체> 인가하는 관점을 조합

하여 동사 분류를 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1)주체동작・객체변화동사—開ける(열다)、折る(접다)、消す(끄다)、倒す(쓰러트리다)、曲げる(굽히다)、入れる(넣다)、並べる(늘어놓다)、抜く(빼다)、出す(내다)、運ぶ(운반하다)、作る(만들다)

(A・2)주체변화동사—行く(가다)、来る(오다)、帰る(돌아가다)、立つ(서다)、並ぶ(줄서다)、(열리다)、折れる(접히다)、消える(사라지다)、曲がる(구부러지다)、入る(들어가다)、出る(나오다)、太る(살찌다)、就職する(취직하다)

(A・3)주체동작동사—動かす(움직이다)、回す(돌리다)、打つ(치다)、蹴る(차다)、押す(누르다)、食べる(먹다)、見る(보다)、言う(말하다)、歩く(걷다)、泳ぐ(수영하다)、走る(달리다)、泣く(울다)、飛ぶ(날다)、揺れる(흔들리다)

「する」의 경우는 일단 접어두고 「している」의 경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 주체동작 ・ 객체변화동사　　동작계속(능동)/ 결과계속(수동)
・ 주체변화동사　　결과계속

· 주체동작동사 동작계속(능동 · 수동)

주체동작 · 객체변화동사는 주체의 관점에서는 동작을, 객체의 관점에서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동사로 모두 타동사이다. 이 동사그룹의 특징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능동과 수동의 대립이 있고, 능동에서는 <동작계속>을 나타내지만 수동에서는 <결과계속>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주체변화동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이고, <결과계속>을 나타낸다.

주체동작동사에는 타동사도 자동사도 있지만 동작만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이다. 타동사의 경우 「回す(돌리다)、動かす(움직이게하다)、揺らす(흔들다)」처럼 객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작(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나, 「打つ(치다)、蹴る(차다)、押す(밀다)」처럼 객체에 대한 접촉만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이므로, 능동-수동의 대립이 아스펙트적 의미의 차이로 연결되지 않고 모두 <동작계속>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분류 방식과는 별도로,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운동이 필연적으로 끝나게 되는 목표로서의 내적시간적한계>의 유무의 관점에서, telic(내적한계)동사와 atelic(비내적한계)동사로 양분할 수도 있다. 이 관점은 <동작>인가 <변화>인가 하는 의미특징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주체의 관점에서든, 객체의 관점에서든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결과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종료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telic verb 이다. 그리고 동작동사는 동작이 성립하기만 하면 어디서 중지되어도 동작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필연적인 종료한계가 없는 비한계적인 운동을 나타내므로 atelic verb이다.

2.2. 내적정태(静態)동사

(B · 1) 사고동사

· 思う(생각하다)かんがえる(생각하다)うたがう(의심하다)わかる(알다)さっする(해

아리다)

・いのる(빌다)きたいする(기대하다)ねがう(바라다)のぞむ(원하다)

(B・2) 감정동사

①あきらめる(포기하다)あこがれる(동경하다)いらいらする(안달하다)うらむ(원망하다)うんざりする(지긋지긋하다)おそれる(두려워하다)

②あきあきする(물리다)あきれる(싫증나다)あんしんする(안심하다)おどろく(놀라다)がっかりする(실망하다)こまる(곤란하다)

(B・3) 지각동사

あじがする(맛이 나다)おとがする(소리가 나다)かんじる(느끼다)きこえる(들리다)ざらざらする(까실까실하다)つるつるする(매끈매끈하다)におう(냄새나다)

(B・4) 감각동사

①いたむ(아프다)うずく(쑤시다)かんじる(느끼다)くらくらする(어질어질하다)つかれる(피곤하다)ずつうがする(두통이나다)どきどきする(두근두근하다)

②しびれる(저리다)つかれる(지치다)かわく(목마르다)へる(배고프다)

2.3. 정태(静態)동사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정태동사에는 기본적으로 「する―している」의 대립이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아스펙트적인 의미가 동일하다.(원래 이러한 동사의 二分割 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見える、聞こえる」와 같은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동사가 존재 한다)

우선, 정태동사를 분류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C ・ 1) 존재 동사

・ある(있다)、いる(있다)

・存在する (存在している(존재하다))、てんざいする (てんざいしてい

る(점재하다))

(C ・ 2) 공간적 배치동사

そびえている(솟아있다)、ひしめきあっている(밀집해있다)、めんしている(면해 있다)、りんせつしている(인접해 있다)

(C ・ 3) 관계동사

・あたいする(상당하다)、あたる(해당하다)、あてはまる(들어맞다)、そうとうする(상당하다)

・いみする (いみしている(의미하다))、しぞんする (いぞんしている(의존하다))、ことなる (ことなっている(다르다))、しめす (しめしている(나타내다))、ちがう (ちがっている(다르다))、てきする (てきしている(적합하다))

・ にている(닮다)

(C ・ 4) 특성동사

・あますぎる(너무달다)、おおきすぎる(너무크다)、およげる(헤엄칠 수있다)、はなせる(말할 수 있다)

・ にあう (にあっている(어울리다))

・ありふれている(흔하다)、すぐれている(뛰어나다)、しっかりしている(빈틈없는성격이다)、せいつうしている(정통하다)、ばかげている(어처구니없다)、まさっている(우월하다)

이상, 아스펙트적 관점에서 동사를 분류했는데, 이는,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텐스대립 현상과 서로 관련된다. 또한, 적극적 동작성의 유무라고 하는 보이스적 측면, 의지성의 유무라고 하는 무드적 측면도, 이차적으로 고려해 두어야만 하는데, 이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아스펙트적 의미의 변종에 있어서 이들이 서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정태동사가 시간적 전개 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아스펙트적 대립이 없어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시에 보이스 대립 및 무드 대립의 결여를 의미한다.

3.「補助動詞」아스펙트 形式의 意味構造

3.1. 「ている」와「てある」

3.1.1. 「ている」의 意味構造

1)「ている」의 基本的 意味

「ている」의 기본적 의미는 「계속」이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동사분류에 의해 「동작의 계속」으로, 혹은「변화결과의 계속」으로 나타난다. 「동작의 계속」를 나타내는 동사 그룹은 다음과 같다. 以下의 설명의 便宜上 3가지로 나눈다.

(A)(ⅰ)주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

歩く、走る、飛ぶ、流れる、泳ぐ、すべる、はう、動く、通る、たどる、うろつく、揺れる、回る、あえぐ、震える、うなづく、あばれる、泣く、笑う、吠る、さえずる、どなる、わめく、答える、働く、踊る、叩く、降る、光る

(ⅱ)객체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주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

たたく、殴る、ける、振る、つつく、はじく、投げる、なでる、さっする、もむ、押す、引く、鳴らす、揺らす、回す、動かす、流す、飛ばす、食べる、飲む、吸う、なめる、かじる、吐く、読む、聞く、見る、言う、話す、数える、探す

(ⅲ)객체에 변화를 초래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

開ける、閉める、作る、塗る、削る、こわす、つぶす、折る、割る、曲げる、巻く、しばる、破る、包む、建てる、直す、焼く、煮る、沸かす、殺す、染める、消す、変える、取る、掛ける、外す、倒す、落とす、寄せる、

離す、入れる、出す、つける、上げる

「변화결과의 계속」를 나타내는 동사그룹은 다음과 같다.

(B) 開く、閉まる、できる、こわれる、つぶれる、折れる、割れる、曲がる、破れる、建つ、直る、汚れる、あたたまる、煮える、沸く、死ぬ、染まる、消える、変わる、乾く、濡れる、取れる、掛る、外れる、倒れる、立ち上がる、落ちる、起きる、寄る、集まる、離れる、入る、出る、行く、来る、帰る、でかける、現れる、太る、やせる、結婚する、就職する、入学する、馴れる、気づく、忘れる、覚える、安心する、あきらめる、着る、はく、かぶる、脱ぐ、きがえる

이처럼, 「ある、いる、そびえている」등 「する」와 「している」의 대립이 없는 약간의 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는, 「している」가 나타내는 아스펙트적 의미에 의해 이른바 「주체동작・객체변화동사」와「주체변화동사」로 2분류로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A)의 「주체동작・객체변화동사」는 「ている」로, 구문적 조건, 장면=문맥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작의계속」를 나타내고, (B)의「주체변화동사」는 기본적으로 「ている」로 「변화결과의 계속」를 나타낸다.

그러나, 특별한 구문적 조건, 장면=문맥적 조건하에서는 (A)의 「주체동작・객체변화동사」가 「ている」로「변화결과의계속」을, (B)의「주체변화동사」가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주체동작・객체변화동사」는 다음의 ①~④의 구문적 조건하에서「변화결과의 계속」을 나타내게 된다.

① 「閉める、作る、染める、上げる、つける」등 주체의 관점에서는 동작을 객체의 관점에서는 변화를 파악하고 있는 동사((A) (ⅲ)의 그룹)에 있어서, (3)의지적 동작주체의 결여에 의해 객체의 변화가 前面에 올 경우, 혹은 (4)

再帰的 의미구조를 취해 주체의 변화가 문제시 되는 경우.

⑶ ・ 昨日行ったけれど、雨戸を閉めていましたよ。

⑷・ 花子が手を上げている。

② 動作量=変化量를 규정하는 수식어가 뒤에 따라, 운동의 量的변화가 문제시 되는 경우.

⑸ 大分、飲んでるね。

③ 移動動詞에 있어서, 移動動作이 끝나는 지점, 목적지를 가리키는 マデ格, ニ格이 뒤에 따라 移動動作이 아니라 位置変化가 문제시 되는 경우.

⑹ 血がいすの下にまで、(まで)流れていた。

④ 伝達動詞에 있어서, 전달 내용을 가리키는 인용의「ート」를 취해, 전달활동보다도 전달결과가 문제시 되는 경우.

⑺ 手紙には五時に着くと書いていたよ。

반대로, (B)의 주체변화동사 는 다음의 ①~④의 구문적 조건하에서「동작의 계속」를 나타내게 된다.

①「だんだん、次第に、徐々に、ますます、どんどん、じりじり、少しずつ、刻々、着々」등 변화의 속도, 변화의 진행상태를 규정하는 수식어가 뒤에 따라올 경우.

⑻ 顎、鼻、耳からあふれた血は舗道の熱気でどんどん乾いていた。

② 변화를 초래하는 동작을 규정하는 수식어가 뒤에 올 경우.

⑼ 涙がひざの上にぽたぽた落ちていた。

③ 동작이 행해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デ格이 뒤에 올 경우.

⑽ 山の上で雨にぬれていたのです。

④ 移動動詞에 있어서, ヲ格, カラ格,「~の方へ」가 뒤에 올 경우.

⑾ 十人ばかりの子供が大川の土手をガヤガヤ学校から帰っていた。

이 같은 타입의 구문적 조건하에서 상호이행일 일어나는 것은 「歩く、飲む、聞く、書く、閉める、入れる」등의 (A)그룹의 동사와 「死ぬ、濡れる、乾く、帰る、来る」등의 (B)그룹의 동사를 시간의 길이의 차이에 의해 각각「継続動詞」「瞬間動詞」로 규정하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진다. 4개씩 제시한 구문적 조건은 「시간의 길이」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의지적 동작주체의 결여나, 「大分」등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형식이 따르는 조건하에서 「閉める」나「飲む」등의 (A)그룹의 동사가 「변화결과의 계속」을 나타내게 되고, 「少しずつ」나「山の上で」등의 변화속도, 동작 장소를 가리키는 형식이 따르는 조건하에서 「死ぬ」나「濡れる」등의 (B)그룹 동사가 「동작의 계속」를 나타내는 것은 奥田氏가 제기한 것처럼 (A)그룹을「주체동작동사」(B)그룹을「주체변화동사」로서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해졌다.

(A) 그룹의 동사 「歩く、飲む、読む、開ける」등은 모두「주체의동작」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휘적 의미와의 법칙적 결합 속에서, ている는 「동

작의 계속」을 실현한다. 그러나, 「開ける、作る、入れる、破れる」등의 (A)(ⅲ) 그룹의 동사는, 주체의 동작과 동시에 객체의 변화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어=의지적인 동작주체와 결합 속에서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지만, 의지 적 동작주체가 결여하게 되면, 객체의 변화의 측면이 前面에 와서 「변화결과의 계속」을 나타내게 된다. 또,「歩く、飲む、たたく」등 (A)(ⅰ), (A)(ⅱ)그룹의 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작을 나타내지만, 현실의 운동에 변화 없이 동작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변화도 함축의 의미로서 갖지 않을 수 없다.

「歩く、飲む」등의 동작은 운동의 양적변화를 초래하고 「流れる、飛ぶ」등의 동작은 위치변화를 초래하고, 「聞く、言う」등의 전달활동은 새로운 정보를 부여하고, 획득한다는 지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일정의 조건하에서는 함축의 의미로 있는 변화 측면이 前面에 오고, 「변화결과의 계속」을 나타내게 된다.

한편, 「死ぬ、濡れる、乾く来る、帰る」등의 (B)그룹의 동사는 기본적으로는 「주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ている로 「변화결과의 계속」을 실현한다. 그러나 현실의 운동에 운동 없이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보통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동작의 측면도 전제로서 갖지 않을 수 없다. 「行く、帰る、出る」등의 위치변화는 동작 없이는 성립하지 않고, 「開く、乾く」등에도 동작=변화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B)의 「주체변화동사」도, 동작을 규정하는 수식어, 동작 장소를 가리키는 デ格등이 오는 특별한 구문적 조건하에서는 전제로 있는 동작의 측면이 나오게 되어「동작의계속」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함축은 함축, 전제는 전제로 있고, 다음과 같은 주체의 관점에서 동작도 변화도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측면 동사와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のぼる、あがる、おりる、近づく、遠ざかる、渡る、進む、転がる、移動する、/増える、減る、焼ける、焦げる、溶ける」

이들의 동사는 주체의 관점에서 동작도 변화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사

자체는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가 「변화결과의 계속」을 나타내는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구문적 조건, 장면=문맥적 조건 속에서 어느 쪽인가의 의미를 실현한다. 동작과 변화가 운동의 두 가지 측면으로 통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같은 동사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のぼる」등의 두 가지 측면 동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운동의 동작 측면인가, 변화의 측면을 선택적으로 나누면서 대립하고 있고, 구문적 조건에 의존하는 것 없이(특별한 구문적 조건이 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A)의 주체동작 동사는 「ている」에서 「동작의 계속」를 (B)의 주체변화 동사는 ている에서「변화결과의 계속」을 나타낸다.

2) 派生的 意味

파생적 의미에는 する와의 대립이 명확하지 않고, 혹은 대립이 없는 것과 동시에, 동작동사와 변화 동사의 대립도 없다. 파생적 의미는 크게 「반복」, 「현재 유효한 이전의 운동」、「단순한 상태」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1) 반복

「반복」에는 다음과 같이 동일 주체에 의한 반복과 복수주체에 의한 반복이 있고, 동작동사에서도 변화 동사에서도 구별 없이 만들어 진다.

⑿ 私強いの。父のをこっそり<u>飲んでる</u>から。

이것들의 用例는 している를 する로 바꿔도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 의미의 경우와 달리, 이 같은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反復」이라는 파생적 의미는, 운동자체의 반복을 문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彼は毎日本を<u>読んでいる</u>」의 경우, 「読みつつある」라는 동작 계속의 반복만 문제시 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読む」라는 운동의 반복이 문제시 되고 있다. 마

찬가지로「彼は毎朝六時に起きている」의 경우, 6시에「おきた状態にある」라는 변화 결과의 계속의 반복을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六時に起きる」라는 운동의 반복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一見 반복으로 보여 지는 것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⑬ 何時行っても、本をよんでいた。

⑭ いつ見ても、ボタンが外れてるじゃないか。

前者는 「운동의 계속 반복」이고, 後者는 「변화결과의 반복」이다. 이 경우에는 「している」가 동작동사인가 변화 동사인가로 대립함과 동시에 「する」로 대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용법에서는「동작 또는 변화 결과의 계속」이라는 기본적의미를 가진 채로, 반복의 의미는 주로 「何時行っても、いつ見ても」라는 형식에 의해 표현되어 진다. 이것에 대해, 처음에 제시한 4개의 用例는, 동작과 변화로 분할되지 않는 운동 그 자체의 반복을 나타내고 있어 기본적 의미와는 다르다. 반복하는 것 자체는 계속적인 것으로, 이 점에서는 기본적 의미와 공통하고 있지만, 반복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운동에 있어서는 계속성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동작동사와 변화 동사의 대립, 「する」와 「している」의 기본적인 대립이 문제시 되지 않는 것 이다.

따라서, 운동 그 자체를 다루게 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 「반복」을 기본적 의미와 구별하고, 하나의 파생적 의미로서 세우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파생적 의미에서는 「している」와 「する」가 교체가 가능하나, 가끔, 운동의 반복이 「恒常的(習慣)」인가 「一時的」인가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계속성을 변용한 형태라 말 할 수 있다.)

⑮ (いつも)私は八時にうちを出ます。

⑯ (この頃は)私は八時にうちを出ています。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정된 기간에 있어서 반복의 경우는 する는 사용 할 수 없다.

⑰ 入院中、先生は冷たいっていつも話していたのよ。

⑱ かぜをひいたの。だから今七時にねているのよ。

또한, 「する」에 있어서도, 「している」에 있어서도 「近頃、毎日、いつも」와 같은 형식과 공존하지 않게 되어 「くりかえし」라는 것보다, 주체의「属性」을 나타내게 된 경우에는 「する」를 「している」로, 「している」를 「する」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된다.

(2) 현재 유효한 이전의 운동

이 파생적 의미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용법이 있다. ①은 이전에 실현한 운동이 기록으로 현재 남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②는 이전에 실현한 운동이 현재의 상태에 어느 정도의 관계(효과 · 영향)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① この手紙によると、彼は去年の九月に京都で彼女に会っている。

② そのことはこの間はっきり知らないとお答えしているでしょう。

어느 쪽의 용법도, 동작동사에서도 변화 동사에서도 만들어 진다. 그리고 「반복」의 경우에는 「する」와 「している」(또는 した와 していた)의 대립이 약해지지만, 「현재 유효한 이전의 운동」에서는 「している」가 과거를 가리키는 형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している」와 「した」와의 대립이 약해진다.

예를 들면 「彼は五年前にアメリカに行っている」의 경우, 현재 가 있어도, 가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五年前にアメリカに行った」의 경우는 이전의 운동을 문제시하고, 그것이 기록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 혹은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している」가 사용되어 진다. 이처럼, 이 파생적 의미에 있어서는 현재와의 연결을 강조하면서, 이전의 운동 그 자체를 문제시 하기 때문에 した 와의 대립이 약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①의 기록용법처럼 記録主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した로 바꿔 말하기 어렵지만, ② 의 경우에는 した로 바꿔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した는 현재와 분리된 이전의 운동을 「叙述的 機能」을 갖고 기술 하고, 「している」는 같은 이전의 운동을 현재와 분리하지 않고 「解説的 機能」을 갖고 기술하는 차이가 있다.

(3) 단순한 상태

이 파생적 의미는, 주어와 술어가 「状態主体와 状態」라는 의미적 연결을 나타내게 되어 ①「-ハ~」의 형태의 형용사문 구조, ②「-ニハ-ガ~」라는 존재 문 구조로 되었을 때 동작 동사에서도 변화 동사에서도 구별 없이 만들어 진다.

① この招き猫は右手をあげている。

② 東京には地下鉄が走っている。

이런 경향은, 「している」의 기본적인 의미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19) 玄関が汚れている。

(20) 彼の部屋は汚れている。

(21) 電車が大通りをがたがたと走っていた。

(22) 大通りには電車ががたがたと走っていた。

주어가 「ガ」가 아니라「ハ」를 취한 경우, 소재의 ニ格을 취한 경우에는, 형용사문, 존재 문에 가까워져 있지만, 이 용법에서는 아직,「変化惺」「動作性」이 결정적으로 확실히 버려져 있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

以上의 의미를 바탕으로 「ている」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ている」는 기본적인 의미로 「동작의 계속」과「변화 결과의 계속」의 두 가지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계속」이라는 것으로는 통일하고 있지만, 어떤 계속에 있는 가로 대립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기초하고 있고, 「する」와 「している」의 대립을 갖는 동사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인가「순간」인가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하지 않고, 「주체의 동작」인가 「주체의 변화」인가라는 의미 특징에 의해 분류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작」과「변화」라는 운동의 두 측면으로 대립하고, 통일하고 있다.

그리고, 「ている」는 파생적의미로 「반복」、「현재 유효한 이전의 운동」、「단순한 상태」의 세 가지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나타낸다.

「반복」、「현재 유효한 이전의 운동」은 する와의 대립이 약하고, 「단순한 상태」는 する와의 대립이 없다.

파생적 의미에서는, する와의 대립이 약하거나 혹은 없어지는 것 과 동시에, 동작동사와 변화 동사의 대립이 문제시 되지 않게 된다.

3.1.2. 「てある」의 意味構造

「てある」形의 의미는 어떤 작용으로 변화된 결과가 대상에 남거나 의지적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에 의하여 변화된 결과의 상태를 말한다. 이때 결과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ている」文이 나타내는 의미 중, 동작이나 작용의 결과에 따른 상태의 의미는 「ている」文과 같으나, 「ている」文은 주체

의 상태를 나타내고, 「てある」文은 대상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本稿에서는, 「てある」의 아스펙트적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결과상태
② 방임
③ 준비

①은 기본적 의미이고, ②,③은 ①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결과 상태를 「存在」와 「完了」의 두 가지로 나눈다.

1) 基本的 意味

「결과상태」는 「てある」形으로 나타내어지는 동작 · 작용이 이미 끝나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크게 나누어 「存在」, 「完了」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잠재되어 있다.

(1) 存在

(23)私はそのことに安心感を覚えながら、机に向かった。すると机にメモがおいてある。

(24)車の中にポケットに入れたコーヒーカップなどのセットが用意してある。

上記의 例에서도 알 수 있듯이, 「存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존재문과 완전히 똑같이 「(場所) に (物) が (-てある)」인가「(物) は (場所) に (-てある)」라는 形의 文이다. 이것은 「して」의 부분의 동작 · 작용에 화자

의 초점이 놓여진 것이 아니라, 「ある」라는 부분에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 (23)의 「机にメモがおいてある」의 경우, 화자의 초점은 「机にメモがある」처럼, 「ある」라는 「存在」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おく」라는 동작 · 작용은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는다.

「存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上記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てある」形의 동사는 반드시 「명사+に」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보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存在」의「てある」形이 존재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존재물이 차지하는 장소가 없어서는 이것들의 문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存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에 있어서는, 동사로 만드는「てある」形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제시 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한 행위」라는 의미는, 「てある」문 속에서는 가장 약해진다.

(2) 完了

(25)成山はバスルームのドアをあけようとした。<u>ロックしてある</u>。当然のことだろう

(26)お母さん、ジュースか何かない？」「オレンジジュースなら、<u>買ってあるわ</u>。」

上記의 例 (25)의 「ロックしてある」에서도 알 수 있듯이, 「完了」의 경우는, 화자의 초점이 「てある」의 「て」의 부분, 즉, 「ロックして」에 놓여져, 누군가 「ロックする」라는 동작 · 작용을 행했다는 그 동작 · 작용의 결과에 초점이 놓여지게 된다.

「完了」의 경우는, 「てある」의「ある」의 부분에 화자의 초점이 놓여져 「存在」의 경우와는 달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に」라는 보어를 원칙으로서 요구하지 않는 動詞類에서 활용되어지고, 그것들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 작용의 대상의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てある」를 「一た状態に

なっている」로 바꿔도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2) 派生的 意味

「してある」形은 방임과 준비라는 파생적 의미를 나타낸다.

(1) 방임

방임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例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7) 読みさしの本をひらきっぱなしにしてあるんだ。

(28) 電話をかけて行くと言ってあるから、まってあるだろう。

(2) 준비

이때의 의미는 기본적의미인 결과의 상태와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의 의미에서 파생된다. 파생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暑い国の動物はさむさによわいのでへやをあたたかくしてあります。

(30) むすこが死なないように神俤に願をかけてその首輪でかれを封じ留めてあるのだ。

위의 例文 (29)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방을 따뜻하게 해두어야 한다는 준비적 의미와 따뜻하게 해놓은 결과의 상태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 말은 준비적인 동작을 끝내놓은 상태를 나타내므로 결국, 기본적 의미인 결과의 상

태에서 파생된 것이다.

다음으로 後者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1)用語やことばづかいは聞き手を考えて親切なわかりやすいものが選んであるか。

(32)そこにはビールの小瓶とコップとつまみ物がきれいな盆に用意してある。

(33)「警察にはもうちゃんとあいさつして頼んであります 」

例文 (31)(32)(33)에 나타난 준비적 의미는 그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른다[10].

① 어휘적 조건으로 어휘 그 자체가 준비적 의미를 띤다.
앞의 例文(32)의 경우로「用意する」와 같은 動詞類이다.

② 構文的 조건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ように」와 같은 句가 포함된 경우와「~ので」와 같은 句가 포함된 경우이다. 앞의 例文 중에서는 (29)(30)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③ 이 밖에 「ちゃんと」「~を考えて」등과 같은 文脈에 의한 경우로 앞의 例文에서는 (31) (32)가 여기에 속한다.

以上 「てある」形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모든 他動詞 가 「てある」形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例를 들어 「思い出す」「信じる」「歌う」「迎える」와 같은 동사들은 「思い出してある」「迎えてある」「信じてある」와 같은 꼴이 되지 못한다.

(34) 田中は去年夏休みのたのしかった旅行を思い出してある。

10) 吉川武時,上揭書, p,265

(35) 小林は中村を信じてある。

「てある」形은 동작이 끝난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지동사가 오게 되고, 제3자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상태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例文 (34)(35)에 사용된 「思い出す」「信じる」와 같은 동사들은 현재의 상태성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한 타동사들이다. 따라서 「てある」形에 연결될 수 없다. 森田는 이것을 동사의 의미론적 차이라고 말하고 있다[11].

以上의 의미를 바탕으로 「てある」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持続에 있어서 人為的으로 招来된 사건이나,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인정되는 현재의 상태에 限하여 他動詞에 連結된다. 또한 他動詞라 하더라도 第3者의 行為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상태성을 나타 낼 수 있는 의지적 의미를 가진 他動詞에만 접속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성을 나타내는 것이 不可能한 「思い出す」「信じる」와 같은 動詞에는 「てある」가 올 수 없다.

3.2. 「てくる」와「ていく」

「てくる」形,「ていく」形은 아스펙트적 의미로서, 동작의 進展에 視点이 놓여져 <화자가 둔 기준 시 동작의 진전>을 나타낸다.

森田良行는 다음 文章에서 「てくる」와「ていく」에 대한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다.

「…てくる」が車の開始、「…ていく」が事の進行を表すところから、話し手の意識としては、「…てくる」を使えば、新たに生じた事態を迎え受け止める気分となり、「…ていく」を使うと、すでに生じている事態の進行を見つめる気持となる。そのため、過去→現

11)上掲書, p.197

在には「…てくる」、現在→未来には「…ていく」を使うのが自然である[12)]。

3.2.1. 「てくる」의 意味構造

「てくる」形 은, 동작의 진전에 시점이 놓여져,〈화자가 둔 기준 시 동작의 진전〉을 나타낸다. 「てくる」形의 〈화자가 둔 기준시의 동작의 진전〉을, 크게〈출현하는 동작의 발생〉〈변화의 점차적 진전〉〈운동의 계속적 진전〉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1) 출현하는 동작의 발생

출현하는 동작의 발생이란, 동작이나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 동작이나 현상이 출현하는 것을 나타낸다.

(36) 雨が降ってきた。

(37) ことばは生活の中から生まれてきます。

위의 例文처럼〈출현하는 동작의 발생〉을 만드는 동사에는, 동작 그 자체가 과정을 갖지 않는 주체변화의 동사나 주체변화로 동작 그 자체는 과정을 갖는 동사가 발생의 단계를 문제로 삼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2) 변화의 점차적 진전

변화의 점차적인 진전은, 변화가 기준시점까지 점점 확대, 진전해 오는 것을 나타낸다.

(38) 日がたつにつれて、白鳥の数がふえてきました。

(39) 彼は徐々に自己の勢力を広げてきた。

---

12) 森田良行, 上掲書, p,125

동작 그 자체는 과정을 갖는 주체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와, 주체변화 동사는 아니지만, 대상에 점차적인 변화를 주는 동사가, 「てくる」形을 취하면, 보통 변화의 점차적 진전을 나타낸다.

3) 운동의 계속적 진전

운동의 계속적인 진전은, 운동이 기준 시까지 계속해오는 것을 나타낸다.

(40) 自分のしてきたことの恐ろしさに、～

(41) 今までのその立場から生物を解釈するように努めてきた。

〈운동의 계속적 진전〉는, 그것이 동작의 단일 事象的인 계속이지만, 断続的인 동작의 복수事象的인 계속인가를 문제 삼지 않는다.

3.2.2. 「ていく」의 意味構造

「ていく」形은, 동작의 진전에 시점이 놓여져, 〈화자가 둔 기준 시 동작의 진전〉을 나타낸다.「ていく」形의〈화자가 둔 기준 시 동작의 진전〉을, 크게 〈소멸하는 동작의 발생〉〈변화의 진전〉〈운동의 계속적 진전〉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1) 소멸하는 동작의 발생

소멸하는 동작의 발생이란, 기준 시에는 존재하고 있는 상태나 현상이 소멸해버리는 동작이 발생, 전개해가는 것을 나타낸다.

(42) 確かに多くの生物の種が滅亡して行った。

(43) 死んで行く人も私もせつない。

소멸하는 동작의 발생은, 例로 제시한 것처럼 〈소멸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2) 변화의 진전

「ていく」形을 나타내는 〈변화의 진전〉는, 변화가 기준시점에서 점점 진전, 확대해 가는 것을 나나낸다.

(44) 種がだんだん変わっていくものと考えながら～

(45) 病気は、ますます重くなっていきました。

「ていく」形의〈변화의 점차적 진전〉를 형성하는 동사는, 「てくる」形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3) 운동의 계속적 진전

「ていく」形을 나타내는〈운동의 계속적 진전〉는, 운동이 기준시점에서 계속해 나가는 것을 나타낸다.

(46) 生物が生きて行くためには～まず食物をとりいれねばならない。

(47) それに耐えていくことが、俺の一時の仕事だったが、～

「ていく」形의〈운동의 계속적 진전〉를 형성하는 동사는, 「てくる」形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3.2.3.「てくる」와「ていく」의 意味 比較

1) 動作, 作用의 시작

(48) 雪が降ってきた。

(49) ピアノの音が聞こえてくる。

위의 例文은 보기에는 공간적 이동에 사용된 보조동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してくる의 動作主 에 대해, 「~が~くる」라고는 말할 수 없다[13]” “~てが述語의 주요 부분이고, くる는, 그「~」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화자 쪽에 가깝다는 의미를 첨가하는 부사적인 성분이 되어 있다”[14] 라는 두 가지 面에서 공간적 이동을 나타내는 문장과 다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성립 될 수 없다.

(48′) ゆきがふっていく。

(49′) ピアノの音がきこえていく。

즉, 本来 동사의 의미를 잃고 사용되는 境遇로서 寺村는 이것을 「V-V」「v-V」어느 쪽으로도 判断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15].

2) 変化의 過程

변화의 과정은 추상적인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50) ときのながれは、刻々に変わっていく。

(51) 自分の生まれた家がどう変化していくか。

例文 (50)은 변화의 주체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명사이고, (51)는 집이라는 물건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있다.
이외에도 자연현상이나, 신체일부가 변화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

13) 寺村秀夫, 前揭書, p.158
14) 上揭書, p.158.
15) 上揭書, p.158.

(52) あたりがしぐれてくる。

(53) 彼は体がふるえてきた。

(54) 自分という男がとてもちっぽけな男に思われてきた。

例文(52)은 자연현상이 변화의 주체이고, (53)는 신체부위가 (54)는 자발적인 사고 작용이 각각 그 변화의 주체가 되고 있다.

3) 出現, 消滅의 過程

(55) そのすがたが目の前にはっきりとうかんできました。

(56) 私はしだいに疲れてきた。

위의 例文 中 (55)은 어떤 현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出現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동사가 많이 쓰인다.

(思いが)あふれて~、現れて~、(考えが)浮かんで~、(気持が)起こって~、(考えが)出て~、[16]

(57) 心細く思いながら、きえていく白鳥のむれを見送りました。

(58) 彼はしだいに力を失っていく。

위의 경우는 화자로부터 발생하여 점차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消滅過程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 까지 볼 때, 「てくる」는 出現「ていく」는 소멸을 나타냄을 알 수 있

16) 森田良行, 前掲書, p,72

다. 그리고 「てくる」는 「~하기 시작하다」는「はじめる」의 뜻을 담고 있다.

4) 時間的 継続

(59) ここまで成長してきたあなたたちははさまざまなことをおぼえたし、またわざを身につけました。

(60) いつのオリンピック大会でも、優勝候補にあげられてきました。

(61) さっきからずうっと書いてきた。

위의 例文에서 볼 것 같으면, (59)의 경우, 어릴 때부터 성장한 현재까지 계속해서 성장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먼 과거로부터 성장작용이 계속됨을 나타낸다.

(60)의 경우, 「いつ」라는 말이 화자의 시점에서는 먼 과거로 여겨지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あげられる」한 것을 나타내므로, 먼 과거의 시점에서부터 반복적인 계속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61)은 「さっき」라는 말이 과거이되 화자의 시점에서는 가까운 과거를 뜻한다. 이와 같이 볼 때 「てくる」는

a) 먼 과거로부터의 継続.

b) 먼 과거로부터의 반복적 継続.

c) 가까운 과거로부터의 継続.

으로 「継続」의 의미를 분류할 수 있다.

(62) うまく宣伝して、新しい観光地として発展させていけばいい。

(63) 夕方から勉強していく。

例 (62)의 경우는 과거에는 관광지가 아닌 다른 부류의 땅이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잘 선전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발전시켜 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基準時点을 過去로 하여 먼 未来를 향한 계속적인 作用을 나타낸다.

(63)는 이제까지 공부를 안했는데, 저녁때부터 공부한다는 作用을 継続한다는 의미로 基準時点은 過去이며, 가까운 将来에서의 継続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볼 때, 「ていく」의 「継続」의 의미는

a) 먼 将来로의 継続.

b) 가까운 将来로의 継続.

으로 分類할 수 있다.

以上의 의미를 바탕으로 「てくる」와「ていく」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発生 現状 - 「てくる」

b. 事態의 進行 - 「ていく」

c. 過去에서 現在에 미치는 影響 - 「てくる」

d. 現在에서 未来에 미치는 影響 - 「ていく」

e. 부정문의 段階로 進行하는 의식 - 「ていく」

f. 事態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경우 - 「てくる」

g.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의 객관적인 事態 - 「ていく」[17]

그리고, 「てくる」와「ていく」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대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

---

17) 森田良行, 前掲書, 倉拓社, p.121~122.『なってくる』와『なっていく』의 比較부분에서 日本語를 韓國語로 置換, 部分的으로 정리함.

18) 國立國語研究所, 動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1972,秀英出版,p.288.日本語를

1) 화자가 현재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話材의 중심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다.

2) 「くる、いく」의 방향은 주인공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도기 때문에 이동의 주체가 주인공과 일치될 경우 바꾸어 쓸 수 있다.

3.3. 「ておく」

3.3.1「ておく」의 意味構造

「ておく」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에서 미리 動作이나 行為를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事後를 예상해서 미리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에 의한 동작을 나타낸다.

本稿 에서는 「ておく」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① 対象의 位置가 変化한 結果状態의 持続
② 対象이 변화한 結果状態의 持続
③ 어느 時点까지 対象에 変化를 준 것
④ 放任
⑤ 準備를 위한 動作
⑥ 一時的인 処置

(1) 対象의 位置가 変化한 結果状態의 持続

(64) 炉に炭を<u>いれておいた</u>。

韓國語로 置換, 部分的으로 정리함.

위 例에서 「~ておきた」가 아닌 「~炭火をいれた」만이면, 그 後 「炭火」의 상태에 화자는 주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いれておいた」라면, 「炭火」를 넣은 후, 그 상태가 지속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같이 「炭火をいれておいた」는 「炭火をいれた」는 것, 즉 대상의 空間的 状態의 변화를 의미하는 同時에, 결과로서 「炭火がいれてある」라는 것, 즉 대상의 결과상태가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対象이 変化한 結果状態의 持続

⑹ わたしの家を人に<u>貸しておいた</u>。

이 例에선 집을 빌려준 결과, 집은 「人」의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상인 「家」가「貸される」라는 변화를 한 결과, 「人」의 것으로 되었다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어느 時点까지 対象에 変化를 준 것

⑹ アパートを建てるということを十か月も前に<u>発表しておく</u>。

⑹ 会議の前に資料を<u>配っておく</u>。

이들 例에선 대상이 된 「アパートを建てるということ」・「資料」가 「発表する」・「配る」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時期前에 「アパートを建てる」・「資料」를 발표・배부한 것이고, 대상인「アパートを建てるということ」・「資料」의 상태를 변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4) 放任

방임이란 대상을 전제로 한 행위로 대상을 어떤 상태로 하여, 그 상태를 언제까지나 지속시킨다는 의미이다. 방임은 대개 방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 한하여 많이 나타난다.

(69) また、その酒を私がすぐには飲まず、いままで取っておいた。

(70) それを書いておけば、将来何かの役に立つ。

(71) 机の上によしさしの本をひらきっぱなしにしておく。

例文(69) 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방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 (70)는 「그것을 써두면 장래에 어딘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장래를 위하여 지금 어떤 행동을 해 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71)은 객체인 「よみさし本」을 책상위에 활짝 펴 놓은 채로 방임하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의 세 例文은 모두 화자의 의지 하에 대상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을 어떤 상태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상태를 언제까지나 지속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이런 방임의 의미는 대개 使役形(思うようにやらせておく)에서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음 例文은 使役形으로서 방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80) 思うようにやらせておく。

(80)은 「생각대로 내버려 두다」라는 뜻으로서 使役形으로 방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吉川(1973)는 「放任動詞」「放置動詞」에 있어서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5) 準備를 위한 動作

이 形式은 뒷일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한 行為 · 動作을 말하며, 그 준비한 행위의 결과상태가 後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됨을 나타낸다.

(81) 暑い国の動物は寒さに弱いので部屋をあたたかくしておいた。

(82) 相手や目的について、必要な事柄をあらかじめ調べておいた。

위의例문는「暑い国の動物」·「相手や目的」는「寒さに弱い」·「必要する」라는 이유 때문에 事後를 予想해서 미리「部屋」·「必要な事柄」를「あたたかくした」·「調べた」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는 動作性 他動詞에 붙는 것이 보통이지만, 드물게 自動詞에 붙는 경우도 있다.

(83) 試合の前に十分眠っておく。

(84) 明日のために寝ておく。

例文(83)(84)의 경우는 나중을 위하여 지금 어떤 행동을 해 둔다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6) 一時的 処置

임시방편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85) これぐらいで、いまは、やめておきましょうか。

(86) 受け取ったお金を一応懐にいれておく。

例文(85)은 「이 정도로 지금은 그만 둡시다.」라는 의미로 「いま」라는 부사에 의해 더욱 일시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86)는 「받은 돈을 일단 주머니

에 넣어두다.」라는 의미로 「一応」라는 부사에 의해 그 의미가 일시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에서 이런 부사들이 없어도 그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85') これぐらいで、やめておきましょうか。

(86') 受け取ったお金を懐にいれておく。

보는 바와 같이 일시적인 느낌을 주는 부사를 제외시켜도 그 의미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以上의 의미를 바탕으로 「ておく」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先行動詞에 따라 대상을 변화시키는 意志動詞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대상에는 작용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의 상태를 지속시키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いれる」「しまう」와 같은 動詞는 대상을 변화시켜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의미와 대상에게 작용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를 지속하는 양과정을 표현하기 쉬운 動詞이다. 또한「つくる」「きる」와 같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든 動詞는 대상을 변화시켜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의미가 부각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의지의 단계에 있어서 「ている」「てある」보다 가장 강한 의지의 표현을 나타낸다.

3.3.2.「ておく」와「てある」의 関聯性

(1) 「てある」는「ておく」의 変化한 결과상태의 지속의 現存을 의미한다.

(87) 貨物を玄関へ回しておきまいた。

(87') 貨物を玄関へ回してありました。

例文(87)은 「貨物을 玄関에 옮겨 놓았다」로서 옮겨 놓은 물건이 지금 그 상태대로 있는지 아닌지 화자의 관심이 없다. (87′)도 (87) 과 같이 해석되지만, 아스펙트적 意味上에 있어서는 相当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87′)은 현재 누가 보아서도 玄関에 貨物이 놓여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てある」는「ておく」의 변화한 결과상태가 현재까지 現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てある」와「ておく」는 相当한 차이가 있다.

(2)「ておく」가 준비를 위한 동작을 하는데 반해 「てある」는 그 동작의 결과상태가 그대로 유지됨을 나타낸다.

(88) いつでも準備し<u>ておく</u>。

(88') いつでも準備し<u>てある</u>。

例文(88)은 「언제나 準備해 두다.」라는 준비를 위한 동작을 나타낸다. 그러나, (88′)은 준비해 둔다는 그 동작의 결과상태가 発話時点까지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てある」가 一時的 処置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一時的 処置를 나타내는 意味의 「一時」「とりあえず」등의 말이 필요하지만 「ておく」는 그렇지 않다.

(89) 二階の窓はいつもあけっぱなしにしてあります。

(89') 二階の窓はあけっぱなしにしておきます。

위의 두 例文 모두 「이층의 窓은 언제나 활짝 열어둔다」는 의미로 같이 해석된다. 그러나 (88)은 일시적으로 열어둔다는 순간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순간적인 의미의 부사가 필요하지만, (88′)은 그런 순간적인 의미의 부사

가 없이도 「おく」란 동사 자체만으로 그런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

3.4. 「てしまう」의 意味構造

「てしまう」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連用形을 받아서 어떤 동작 · 작용이 완료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てしまう」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動作 · 作用의 終了나 完了

② 사건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積極的인 동작과 회복 불가능한 동작으로서의 完結)

③ 無意志的 動作

1) 動作 · 作用의 終了나 完了

(89) 本をおしまいまでよんでしまった。

例文(89)은 「책을 끝까지 읽어 버렸다」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일의 완료, 혹은 종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개는 의지성 동사를 받아 적극적인 행동의 의식을 나타낸다. 이때에 「すっかり」「ぜんぶ」와 같은 정도부사를 첨가시키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89') 本をおしまいまですっかり読んでしまった。

2) 사건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積極的인 동작과 회복 불가능한 동작으로서의 完結)

(90) そしてぶどうをおいしく食べてしまいました。

(91) ぼくだけはほんとうに心からしおれてしまいました。

例文(90)처럼 積極的인 行動으로 대응하여 그것을 결말짓는 것을 나타내고, (91)는 어떤 동작, 작용이 행해진 결과 회복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積極的인 행동의 결과라는 의미와 회복 불가능한 동작으로서의 완결의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90)처럼 積極的인 主体의 동작에 의하여 행해져버린 경우를 松下大三郎는 「対抗的 完全動態」[19] 라 하고, (91)와 같이 동작, 작용이 행해진 결과 회복 불가능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逸走的 完全動態」[20] 라고 일컫고 있다.

3) 無意志的 動作

(92) 初めてだから少し上がってしまった。

(93)途方にくれた母子二人は二十匹にも余る野馬の群れに囲まれてしまいました。

例文(92)(93)은 인간의 無意志的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てしまう」를 除外한다 하더라도 의미의 변화는 크게 없다.

(92') 初めてだから少し上がった。

(93')途方にくれた母子二人は二十匹にも余る野馬の群れに囲まれました。

즉, 動詞自体에 갖고 있는 無意志性 때문에 「てしまう」에 의해 전달되는 의

19) 松下大三郎, 改選 標準日本文法,,德田政信篇,勉誠社,1983, p.403
20) 松下大三郎, 上揭書, p.403

미는 별로 강하지 못하게 느껴진다. 또 意志性 동사일 경우에는 「てしまう」의 도움을 받아서 無意志的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주체의 의지와는 無関하게 期待를 벗어나거나 경우를 위반한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反期待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체는 非情物이 되고, 現在形이 많다.

다음의 例가 그런 경우이다.

(94)読点の打ち所がちがうと同じ文でも意味が変わ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

例文(94)은 「読点을 치는 곳이 틀리면,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具合い悪い状態になる」「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する」라는 나쁜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게 된다.

以上의 의미를 바탕으로 「てしまう」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てしまう」는 동사의 連用形을 받아서 어떤 동작 · 작용이 완료하는 것을 나타내는데「切る、消す、捨てる、やめる」와 같은 意志動詞는 積極的인 動作으로서의 완결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とける、燃える、倒れる」와 같은 動詞는 無意志的 作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反期待의 의미를 나타낼 때 主体는 非情物이 되고, 時制는 現在形이 많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아스펙트의 여러 가지 형식중의 하나인 「補助動詞」에 의한 아스펙트 形式을 대상으로 아스펙트적 意味構造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아스펙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概念과 先行研究, 아스펙트의 動詞分類등 아스펙트全般에 걸친 日本語 動詞의 아스펙트적 性格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補助動詞」에 의한 아스펙트形式의 意味構造를 분석해 보았다.

以上, 앞에서 提起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ている」는 동작의 계속과 변화결과의 계속의 두 가지의 기본적 의미를 나타내고, 이 두 가지의 의미는 계속이라는 것으로는 하나이지만, 어떤 계속에 있는 것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기초하고 있고, 「する」와「している」의 대립을 갖는 동사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인가「순간」인가의 시간의 길이에 의하지 않고, 「주체의 동작」인가「주체의 변화」인가의 의미특징에 의해 분류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작」과「변화」라는 운동의 두 측면으로 대립하고, 통일하고 있다. 그리고 「ている」는 파생적의미로 「반복」「현재유효한 이전의운동」「단순한 상태」의 세 가지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나타낸다. 「반복」「현재유효한 이전의운동」은 「する」와의 대립이 약하고, 「단순한 상태」는 「する」와의 대립이 없다. 파생적 의미에서는, 「する」와의 대립이 약하거나 혹은 없어짐과 동시에, 동작동사와 변화 동사의 대립이 문제시되지 않게 된다.

「てある」는 어떤 작용으로 변화된 결과가 대상에 남거나 의지적 동작을 나타내는 他動詞에 의하여 변화된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며, 결과 상태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放任과 準備를 나타낸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성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한 他動詞는 「てある」形이 올 수 없다.

「てくる」「ていく」는 동작의 진전에 시점이 놓여져 「 화자가 둔 기준 시 동작의 진전」을 나타내는데, 「てくる」가 화자에게로의 접근, 출현의 과정을 나타내는데 반해「ていく」는 화자에게서 출발함으로서 점점 멀어져 감을 나타내는 소멸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てくる」「ていく」에 있어서 화자가 현재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동의 주체가 주인공과 일치될 경우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ておく」는 事後를 예상해서 미리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에 의한 동작을 나타낸다. 「てある」가 동작이 행해진 후, 그 대상이 변화한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반해 「ておく」는「てある」를 위한 준비동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てしまう」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연용형을 받아서 어떤 동작・작용이 완료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완료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지성동사가 많으며, 무의지적 동작을 나타낼 경우에는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반기대나 경우를 위반한 행위를 나타낸다. 또, 「てしまう」形에 있어서는 동작, 작용의 완료를 나타낼 경우에 있어서는 程度副詞의 修飾을 필요로 한다.

以上,「ている」「てある」「てくる」「ていく」「ておく」「てしまう」에대한 아스펙트적 의미구조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本稿를 연구하면서 아스펙트가 현대일본어의 시간표현인텐스와 많은 관련성을 가진 카테고리라고 생각되어진바, 기본적으로 아스펙트와 텐스가 상대적으로 독립한 카테고리 인지를 확인하고, 어떤 파생적 의미에 있어서 이들의 카테고리가 관련되는지, 앞으로 아스펙트와 텐스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参 考 文 献

金田一春彦, 「国語動詞一分類」.『言語研究』15. p48-63 1950

_____ ,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1976

_____ , 「日本語動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1976

奥田靖雄,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 』『教育国語』53-54, 1977.

鈴木重幸,『日本語の動詞のとき(テンス)とすがた(アスペクト)』(金田一編(1976)『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に所収),1958

_____, 『日本語文法・形態論』.むぎ書房, 1972.

_____, 『現代日本語の動詞のテンス』.(『動詞の研究』むぎ書房), 1979.

_____,「日本語動詞のすがた(アスペクト) について」,『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金田一春彦編. むぎ書房, 1976.

高橋太郎.「すがたともくろみ」.『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金田一春彦編, むぎ書房, 1969

_____,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とテンス』秀英出版,1985

寺村秀夫, 「テンス・アスペクト・」,『日本語と日本語教育』,文化麝, 1982.

_____,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1984.

_____, 『寺村秀夫論文集Ⅰ--日本語文法編』,くろしお出版, 1992.

工藤真由美,『アスペクト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国文学解釈と鑑賞,1986, 1月号

_____,『シテイル形式の意味のあり方』, 日本語学, 明治書院, 1982, 12月

_____,『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クスト』ひつじ書房, 1995

松下大三郎, 日本俗語辞典, 誠文社, 1901.

_____, 改選標準日本語文法, 得田政信篇, 1983

森田良行, 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 明治書院, 1994

_____, 日本語の類意表現, 創拓社, 1992

吉川武時,『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の研究』,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 1976

藤井正, 「「動詞＋テイル」の意味」,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金田一春彦編, むぎ書房, 1966.

Comrie. B.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1-108 1976

金炫希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に 대한 考察』啓明大学院, 1995

金恵林 『現代 日本語動詞의 相에 관한 考察』清州大学院, 1992

李明玉 『日本語動詞의 アスペクト的 意味考察』啓明大学院, 1995

鄭相哲『アスペクトの基本概念をめぐって(1),(2)』韓国外国語大学, 2004.

金玉英『「ている」と「てある」の意味－韓国語との比較対照－』釜山大学校, 1991.